교육연합신문

2009년 12월 23일(수) 제 30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학교탐방››› 서울경기고등학교 7면

서울 경기고등학교(교장 이기성)는 지난 1900년 문을 열었다.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중학교'로서 109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학교탐방››› 인천백운초등학교 16면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받은 '인천백운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여행››› 다산 정약용 생가 13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한 다산 유적지에는 정약용의 생가 여유당과 그의 묘가 있다. 그 곳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교과부, 정보공시제 개선

대학 경쟁력 알림서비스도 도입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급 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서비스가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학의 주요지표별 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학 경쟁력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 12월 15일 교육정보공시제 시행 1년을 기념하는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작년 12월 처음 시행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와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가 시연을 통해 처음 공개되었고 '교육정보공시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새롭게 제공되는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는 그 동안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꾸준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의 '학교알리미'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과부는 이번 기능 개선을 통해 공시정보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보면 먼저 '주요지표 검색하기' 기능이 추가돼 모두 22개의 공시정보에 대해 학교급, 학교유형(국/공/사립), 지역(시도/시군구) 등을 선택해 조건에 맞는 검색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체정보 열람하기'를 통해서 개별 학교의 모든 공시정보를 한 눈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보기'에서는 선택한 학교의 공시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의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평균값을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용효 정책기획실장은 주제발표('학교정보공시 성과와 발전과제')를 통해 학교알리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실장은 조사결과를 인용해 교육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행전 58.9%➡시행후 76.5%), 학교교육 참여 확대(시행전 51.4%➡시행후 62.8%), 효율적·투명적 학교경영(56.6%➡시행후 69.3%), 교육여건 개선 계기 조성(시행전 45.8%➡시행후 67.1%) 등의 각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 접근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학교정보공시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 관심정보 추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으로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교육정보 관련 시스템 사이의 연결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정보 검색 서비스'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는 공시정보 가운데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대표하는 주요지표에 대해 해당 대학의 상대적 수준을 '식별기호(가칭 신호등 체계)'로 보여줌으로써 공시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이다.

한양대 이 영 교수(경제금융학부)는 대학정보공시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정보공시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의 70% 정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았거나 일부를 찾았다'고 대답한 반면, 대학정보공시제 유용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78.93점/100점 만점)했다"면서, 이는 '대학정보공시제'에서 보여주는 많은 정보가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대학경쟁력 알림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정보공시의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결과를 통해 "학부모들이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사용의 편리성과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며 '대학정보공시제'의 발전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시체제 정립과 '지표의 신뢰성' 제고, 허위공시 제재(처벌) 강화, 총괄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교육정보공시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

여름엔 '농활', 겨울엔 '과활'

교과부, 과학체험 봉사활동 참가 대학(원)생 봉사자 모집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과학체험 캠프가 올해도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정윤 이사장)과 함께 '2009 동계 과활마당 (대학(원)생 과학봉사활동 한마당)'에 참여할 대학생, 대학원생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모집인원은 모두 840명이며 '과학 꿈나무' 양성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 및 휴학생)은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진행하는 '과활마당'의 명칭은 농촌 봉사활동인 '농활'을 참고로 한 것이다.

봉사자로 선정된 대학(원)생들은 내년 2월 8일부터 20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4박 5일 동안 열리는 과학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봉사자들은 각 지역에서 열리는 과활 프로그램을 행사 전에 직접 기획하고 실습하며, 7명이 한 모둠을 이루어 전국 140여 개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시설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특히 이번 행사는 대학생 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준비하고 기획해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교과부는 이번 과활마당에서도 다양한 과학체험을 통해 대학(원)생 봉사자들이 초·중학생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면서 봉사자와 초·중학생이 오감을 통해 서로가 따뜻하게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활마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동계 과활마당' 공식 누리집(www.s-volunteer.or.kr)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봉사자 명단은 내년 1월 15일 같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농협중앙회 교육금고 약정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금고를 맡게 될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과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교육청은 교육금고를 맡아온 농협중앙회와 금고 약정기간이 12월 말로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금고선정 방식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 지난 11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교육금고로 농협중앙회를 선정했다.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교육선진화

인천시교육청,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학부모회 임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공교육 살리기에 적극 활용하고,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실현뿐만 아니라 기존 재정적 후원기능의 학부모 조직을 학교 참여 활동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 학부모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 제공 및 전문교육 지원 미흡 ▲ 자녀지도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부족 ▲ 학부모 지원조직 및 정책 부재 등을 학부모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과제로서 첫째,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수렴 기능 강화와 학부모회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위원 참여 등을 통해 학부모회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둘째, 학부모 교육지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입학사정관제, 고교유형별 특성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학교회계 및 교육과정 등 학교 참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EBS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원격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및 수업공개 활성화, 학부모 상담 활성화 및 상담사 운영, 학부모 지원센터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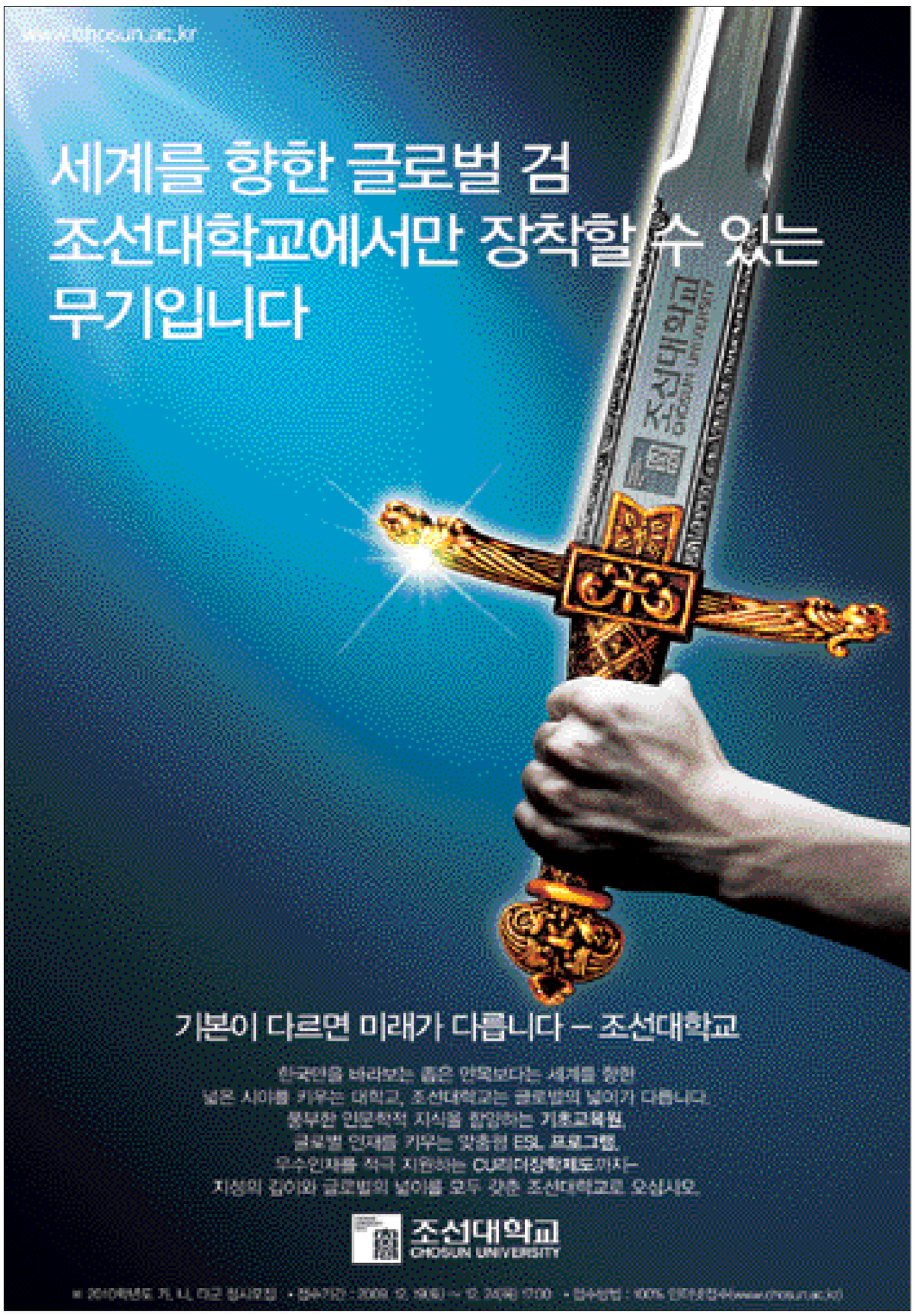
교육연합신문 학생 기자에 도전하세요!

교육연합신문은 초·중·고교생들에게 명예기자로 활동할 기회를 드립니다.

교육연합신문은 학생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학교 현장, 교육분야 모두와 건강 여행 문화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다루는 신문입니다.

신문사의 명예기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육연합신문에서 다루는 공통 주제는 물론이고, 학생들 눈에 비친 어떠한 주제라도 기사로 쓸 수 있습니다.

기사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배운대로 6하 원칙을 지켜 작성하시면 되고, 책을 통해 익힌 교양지식을 활용해 주장이 담긴 글로 글 솜씨를 뽐내셔도 좋습니다. 논술에도 도움되고 학생의 지혜를 넓혀 주는 신문 명예기자 선발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정보 2면〉

◆ 접수처: news@eduyonhap.com
◆ 문의전화: 032) 433-1633